



자유한국당

국회의원 김선동

보도자료

배포일시	2018. 10. 22(월)	담당자	강태용 비서관 (010-4925-4509)
문 의	784-8971~3		박필동 보좌관

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중소기업 육성·지원이 없다?

- 주요 업무로 예·적금 기능만 중시, 정책금융은 정부 위탁·승인업무만 수행
- 김선동의원 중소기업 금융 전문성 담을 수 있는 「중소기업은행법」 개정 추진

-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(서울 도봉구을, 정무위)은 IBK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정작 「중소기업은행법」 조문에는 ‘지원’과 ‘육성’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보이지 않고, 주요업무도 정부 위탁·승인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.
- 중소기업은행은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책은행이다.
- 그러나, 해당 법률 조문 어디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.
- 오히려 「한국산업은행법」 제18조 제1항 업무에 “중소기업 육성”, 제3항에 중소기업 지원 관리를 위해 내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.
- 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는 중소기업은행 업무를 10가지로 나열하고 있는데, 제1호 ‘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’, 제2호 ‘예금·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’ 등이 주요 업무로 편제되며 기능적인 면만 부각되어 있다.

- 제8호에 가서야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, 금융위원회 승인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주도적인 입장에서 정책금융을 하는 것이 아니라, 정부가 위탁하거나 승인한 업무만 할 수 있는 수동적인 구조이다.

중소기업은행법	한국산업은행법
<p>제1조(목적)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(中小企業者)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<u>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33조(업무) 중소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2. 예금·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3.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·인수 및 사채의 응모·인수·보증. 다만, 주식의 인수는 중소기업은행의 납입자본금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 주식 또는 사채는 수시로 매각할 수 있다. 4. 내·외국환과 보호예수 5. 지급승낙 6. 국고대리점 7. 정부·한국은행 및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8.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 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0.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	<p>제1조(목적) 이 법은 산업의 개발·육성, 사회기반시설의 확충, 지역개발,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·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18조(업무)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산업의 개발·육성 2. 중소기업의 육성 3.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4.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5. 기업·산업의 해외진출 6. 기업구조조정 7.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8.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 <p>② 생략</p> <p>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<u>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u></p>

-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담당 비중을 살펴보면, 일반은행, 국책은행, 지방은행 등 제1금융권 전체 중소기업대출 653조원 중 중소기업은행이 담당하는 규모는 148조원, 22.7%를 차지하고 있다.

<표 1>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대출 담당 비중

단위(조원)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.6월
은행권 전체(A)	506.9	559.6	590.2	631.8	652.9
중소기업은행(B)	114.7	125.0	133.4	141.6	148.0
비중(B/A)	22.6%	22.3%	22.6%	22.4%	22.7%

자료 : 중소기업은행(한국은행 보고기준 제1금융권 전체)

- 중소기업은행은 2017년 기준 21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47조원을 공급하여, 산업은행의 지원기업수 3,919개, 지원금액 19조원과 단순비교해도 중소기업은행이 54배나 많고, 지원금액도 두 배 이상 많다.

<표 2> 중소기업은행·한국산업은행 기업규모별 자금공급 현황(2017년)

	중소기업은행		산업은행	
	실적	기업수	실적	기업수
중소기업	469,098억원	209,784개	193,782억원	3,919개
대기업 등	29,100억원	1,339개	450,654억원	1,674개
합계	498,198억원	211,123개	644,436억원	5,593개

자료 : 중소기업은행·한국산업은행

- 김선동의원은 “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육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특수목적은행이고, 그간 지원 실적과 축적한 노하우를 고려해 볼 때 근거 법률에 중소기업 육성이 빠졌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”며, “중소기업은행법에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